

경기침체 최대 피해자는 '화이트 칼라'



▲ 사상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를 시작한 실리콘 밸리 아마존 본사. 사진=shutterstock

미국이 내년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화이트칼라' 직군에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CNN비즈니스의 전날 미국 재취업기업 '캘린저 그레이앤크리스마스'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기술회사들은 이달 들어 3만1,200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를 시작했고 메타는 최근1만1,000명의 감원을 발표했다. 트위터도 회사인원의 절반을 해고했고 최근 넷플릭스, 스냅, 리프트 등 중저급 기술회사들이 감원에 나섰다.

고임금 사무직을 중심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밀컨연구소의 윌리엄 리 수석 경제학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다."라며 미국이 곧 경기침체에 접어들면 사무직 근로자들이 생산직 근로자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기간 기술 회사들은 고속 성장하며 인력도 크게 늘렸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각국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다. 이에 성장세가 주춤해진 기술 회사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며 화이트칼라업종의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첫째인 2020년에는 주로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에는 '화이트칼라 불황'의 신호가 지적되고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도했다.

LA시장에 '캐런 배스' 당선 ... 첫 여성 시장 탄생

LA 시에서 역사상 첫 여성 시장이 탄생했다.

LA 카운티 선거국이 16일 공개한 최신 개표 결과 캐런 배스 후보(69)는 53.1% 득표(40만3,427표)를 득표해 46.9% 득표(35만6,849표)에 그친 릭 카루소 후보를 6.2%포인트, 4만6,578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주의회, 연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배스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 무려 1억 달러를 쏟아부은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릭 카루소 후보에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기도 했던 그는 여성으로는 최초, 흑인으로는 역대 2번째로 인구 400만명을 거느린 대도시 LA를 이끌게 됐다. 최초의 흑인 LA 시장은 1973년부터 20여년 간 재임한 톰 브래들리다.

노숙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배스 당선인은 당선을 확정 지은 뒤 트위터에 "LA는 내 삶의 터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시민들을 섬길 준비가 돼 있다"며 "취임첫날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LA 시 역사상 첫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캐런 배스. 사진=usatoday.com

LA는 흑인 폭동이 일어난 1990년대에 비해 범죄율이 떨어지고 치안이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거리나 천막, 고물 차량 등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만 명에 달하는 등 노숙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LA는 미국에서 주거비가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로 악명이 높고, 생활비와 세금 역시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2024 대선, '바이든 VS. 트럼프'? 새 인물 대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으로 2024년 11월 예정된 차기 대선 경쟁이 본격 접화됐다.

최대 관심 포인트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여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루 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도 그동안 재선 도전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밝혀 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당 안팎에서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변수다.

공화당에서는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은 트럼프 전 대통령(35%)보다



▲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공화당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왼쪽)와 민주당 부티지 지 교통부장관. 사진=fsm.tv/caranddriver.com

이번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선후보가 되어야 한다(42%)고 대답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외로 선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변수는 고령에 저조한 지지율이다. 올해 80살인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0% 안팎에 머물러 있다.

이와 함께 당내 세대교체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할 경우 현 정부 2인자로 당선 시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되는 해리스 부통령과, 이번 중간선거 때 민주당 내 선거 지원 러브콜 1순위였던 부티지 지 교통부장관 등이 대통령 후보를 놓고 진검승부를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날말퍼즐 정답

				1 평	2 가	절	하
	3 전	붓	4 대		부		
5 반	환		6 우	7 왕	좌	8 왕	
려				겨		9 건	10 각
11 자	12 작		13 매				선
	14 정	15 문	일	16 침		17 현	미
		지		18 착	수	금	
19 오	두	방	정				

숨은그림찾기 정답

